

# IAAE-부산시교육청, 국내 첫 중고생 대상 '인공지능 윤리 캠프' 성황리 마쳐

- 중등부 6팀, 고등부 13팀 등 40여명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발표와 토론 펼쳐

김동호 기자 2023-08-28 09:10:57 사회이슈

IAAE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이사장 전창배)는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주최한 국내 첫 중고생 대상 "2023년 인공지능 윤리 캠프"를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올바른 인공지능 윤리 의식 함양과 생성형AI 활용을 통한 AI 리더러시 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지난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부산시 중고등학생 40여명이 참가하여 AI 윤리에 관한 열띤 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 국내 첫 중고생 대상 '부산시교육청 2023년 인공지능 윤리 캠프'에서 행사를 마친 후 참가 학생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제공=IAAE)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의 개회사와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의 축사로 시작된 행사에서,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김형주 교수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인공지능 윤리'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인공지능의 편향성 등 AI 윤리 사례와 학생들의 올바른 AI 활용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이어 진행된 '생성형AI를 활용한 AI 윤리 포스터 만들기' 실습에서 참가 학생들은 현장에서 발표된 AI 윤리 주제에 따라 ChatGPT, Canva 등 생성형AI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AI 윤리 포스터를 제작했다. 오후 시간에는 사전에 학생들이 작성해온 발표문을 공유하는 '인공지능 윤리 발표회'와 '인공지능 윤리 포스터 발표회'가 이어졌으며, 팀별로 진행된 발표에 대해 현직 교수진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평가했다. 심사결과 중등부 4팀, 고등부 5팀 등 우수팀에게는 상품이 수여됐다.

캠프 행사를 주최한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은 "이번 캠프는 참가 학생 모두, 올바른 인공지능 윤리관을 확립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를 운영한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인공지능의 발전에는 AI 기술과 AI 윤리의 조화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 캠프는 AI 윤리 교육과 AI 활용 프로그램들이 균형 있게 구성되어, 학생들로 하여금 AI 윤리 리터러시와 AI 활용 능력을 조화롭게 배우고 함양할 수 있게 한 점이 긍정적인 효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